

- 사, 2009.
- 유해룡. “개혁주의 영성.” 「교회교육」, 1994. 3.
- \_\_\_\_\_. “후기 중세시대의 신경건운동.” 「교회교육」, 1994. 2.
- 윤종한. “칼빈의 영성신학 수립의 가능성과 목적에 대한 소고.” 「칼빈과 개혁신학」, 광주 : 광신대학교출판부, 1999.
- 이수영. 한국칼빈학회. “칼빈의 경건.” 「John Calvin, 그 후 500년」, 서울 :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이은선.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영성 : 관상기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제46권(2009).
- \_\_\_\_\_. “제네바 아카데미와 개혁파 정통주의.” 「종교개혁과 개혁신학」, 서울 : 성광문화사, 2000.
- 채영삼. “신약의 자기 부인의 영성과 칼빈의 이해.” 「칼빈과 영성」, 부산 : 개혁주의학술원, 2010.

## 11 교회개혁과 칼뱅의 수사학-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승연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 1. 들어가기

16세기 종교개혁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가톨릭 내에서도 다양한 방향의 자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16세기 교회는 그 방법과 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쇄신의 목소리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의 요구는 하나였지만, 기저에 흐르는 동기들이 늘 일치한 것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개혁의 경우는 개혁가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정치가들의 정치적 야망에 원치 않게 이용되기도 했다. 특히 독일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지방종교회의에서 개혁자들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원치 않는 신학노선과 정치적 입장을 굴욕적으로 취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 출신의 망명가였던 칼뱅은 비교적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유롭고, 분명한 개혁을 지향하는 제네바 시에 발탁됨으로 소신 있는 개혁사상을 펼칠 수 있었다. 물론 제네바 사역 초기에 시의회의 갈등으로 쫓겨나기도

하지만, 제네바는 결국 칼뱅을 다시 찾게 된다.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이후에도 분명한 개혁노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칼뱅은 상황에 유연하고 민감하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어 보인다. 그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난제들 속에서 개혁 사상을 펼쳐 나갔는가?

오늘날보다 종교와 종교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에, 정치적인 압력과 종교개혁의 높은 이상을 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칼뱅의 저술 「교회개혁의 필요성」(*Supplex erhortatio ad Carolum*, 1543)<sup>1)</sup>은 현실과 이상, 정치와 교회 사이의 괴리 속에서 개혁사상을 유능하게 펼쳐 내고 있는 개혁파 지도자 칼뱅의 면모를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칼뱅이 현실과 이상, 정치와 교회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종교개혁사상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수사학적 관점<sup>2)</sup>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세속 수사학과 칼뱅의 수사학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더 커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점이 연구의 목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칼뱅이 시도한 세속 학문 사용, 구체적으로 수사학 사용 연구를 통해 극심하게 세속화된 현대의 교회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CO, v. VI, pp. 453–534.

2) 칼뱅의 작품을 수사학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다양하다. 「기독교강요」를 분석한 저술들은 아래와 같다. Quirnus Breen, *Christianity and Humanism*(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8), Don H. Compier, *John Calvin's rhetorical Doctrine of Sin* (N. Y : Edwin Mellen Press, 2001), Serenes Jo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Kenturcky : Westminster, 1995). 로마서 주석을 분석한 작품은 Benoit Girardin, *Réthorique et Théologique*, Paris : Éditions Beauchesne, 1979. 교육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저술은 P. O. Kriseller, *Renaissance Thought and Its Sources*(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여러 저술들을 추출하여 칼뱅의 인식론적 접근으로 분석한 작품으로는 William Bowsma, *John Calvin : A Sixteenth-Century Portrait*(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지성사적 접근으로 분석한 책은 Suzanne Selinger, *Calvin against himself*(Connecticut : Archon Book, 1984).

## 2. 수사학과 칼뱅

### 1) 칼뱅이 수학한 교육과정과 수사학

먼저 우리는 간단히 청년 칼뱅의 인문학 훈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의 교육 프로그램과 수사학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칼뱅은 라 마르슈 대학(Collège de La Marche)에서 라틴어와 수사학과 문법을, 몽페귀 대학에서는(Collège Montaigu) 신학과 철학을, 오를레앙(Orléans)과 부르주(Bourge)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수사학을 근간으로 한 로마법을 연구한다.<sup>3)</sup> 수사학에 대한 칼뱅의 관심은 그의 처녀작 「관용론」(*De Clementia*) 주석<sup>4)</sup>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칼뱅이 자신의 첫 작품을 로마의 응변가이며, 수사학자, 철학가, 정치가인 세네카로 삼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칼뱅은 이 작품을 통해 프랑스에 적용되는 정치적 교훈을 끌어낸다. 그가 당대의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끼치기 원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칼뱅은 이 주석에서 수사학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키케로(Cicero)와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를 자주 인용하며 권위의 근거로 삼는다. 칼뱅이 회심 후 인문주의 저술 작품을 그만둔 뒤, 저술된 다수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고전의 작가들은 여전히 인용된다.

당대의 수사학은 칼뱅이 훈련 받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칼뱅이 목회 후보생들을 훈련시킨 제네바 아카데미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의 책 리스트를 볼 때,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의 작품, 헬라어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 고대 역사를 공부하도록 요구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칼뱅과 그의 학생들이 다양한 고전 인문학과 수사학을 이해하고, 또 이것들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sup>5)</sup>

3) Serene Joh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Kenturc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pp. 17–18.

4) CO 5 : 1–162.

5) Serene Joh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Kenturcky : Westminster John

## 2) 칼뱅 작품 속의 수사학

수사학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고대로부터 논쟁의 화두였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소피스트 수사학의 궤변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위험성을 경계했다. 진리가 없는 그럴듯한 외적 형식(수사학)이 사람들을 혼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피스트의 궤변의 수사학 시기를 지나, 공정적인 수사학 사용은 이소크라테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소크라테스는 관념적인 그리스 철학보다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어의 교육적 힘에 관심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과 철학은 서로 반대급부에 있었고, 상호 간에 배타적이었다. 이 두 가지가 효과적인 절충을 이룬 것은 응변가의 이상을 구현한 로마의 키케로에 의해서였다. 키케로는 수사학과 철학을 분리한 플라톤을 비판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기술적 측면만 강조함으로 도덕-윤리적 취약점을 갖는데 이 부분에 있어 연설자의 도덕성을 강조함으로 보완한다. 철학적 배경이 부족했던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정통 철학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응변가의 이상에 관해 저술하는데, 이것이 이상적인 응변가론(Orator perfectus)이다.<sup>6)</sup>

칼뱅이 중세 스콜라주의의 사변신학과 건조한 글쓰기로부터 탈피하여 수사학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은, 키케로주의로의 회귀, 수사학의 재생으로 볼 수 있다. 큐리니어스 브린(Quirius Breen)은 칼뱅의 수사학을 단순한 키케로의 재생의 차원을 넘어선 ‘역동적인 키케로 주의’로 본다. 그는 칼뱅의 수사학이 키케로의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더 큰 생기를 주는<sup>7)</sup>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뱅의 수사학은 키케로의 것과 분명히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칼뱅은 세속 수사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칼뱅은 그의 「스캔들론」(*De Scandal*, 1550년)에서, 복음전파의 ‘스캔들’, 즉 ‘걸림돌’의 종류 중 첫 번째를 성경의 단순한 언어로 듣다. 칼뱅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과 응변

가들 못지않게 그들만의 언어에서 완성도를 보였다.”는 억지 변호를 거절하며 “응변가들의 미사여구와 저술가들이 좋아하는 장식어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기꺼이 동의한다.”<sup>8)</sup> 칼뱅은 바울의 견지에 동의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화려한 응변이 없는 곳에서 하늘의 지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빛난다고 주장한다”(고전 4장). 칼뱅은 말한다. “요한이나 바울의 가르침이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화려함으로 꾸며진다면, 아마도 자신만만한 독자들을 끌어들일 매력을 더 많이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양심을 움직이는 능력과 권위를 얻는 가치는 단 1퍼센트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실제 인간의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듬는 말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더듬더듬 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레 같은 어조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마치 모든 응변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자기의 내적 재능으로부터 모든 어휘력을 총동원하듯이, 고귀한 위엄으로 인간의 지성을 복종시키기 위함이다.”<sup>9)</sup>

칼뱅에게 응변학이나, 수사학 역시 인간의 지혜의 일부에 속한다. 그것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칼뱅은 키케로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매혹적인 소리로 인간의 귀를 간지럽게 하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깨뚫으시기를 선호’하셨기 때문이다.<sup>10)</sup>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人文주의자였던 칼뱅이 당시의 세속 인문주의운동과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칼뱅 수사학의 특성은 독특한 언어 철학에서 기인한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실로 의사소통에 대한 성찰의 기초다. 그의 언어 철학은 곧바로 그의 성육신 신학과 연결된다. 교수대와 비교되는 십자가의 스캔들은 ‘Kenos’로 알려진 낮아짐의 절정을 이룬다.<sup>11)</sup> 이것은 인간 지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

6) Knox Press, 1995), pp. 62–63.

7) Cicero, Marcus Tullius, 안재원 편역, 「수사학」, 서울 : 길 출판사, 2006, p. 30.

7) Quirius Breen, *Christianity and Humanism*(Mic : Wm. B. Eerdmans, 1968), pp. 110–114.

8) 박건택, 「칼뱅작품선집 VII」(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0), p. 491.

9) 위의 책, p. 492.

10) 위의 책, pp. 492–493.

11) Bernard Corttret, 박건택 역, 「루터 칼뱅 웨슬리」(서울 : 솔로몬, 2004), p. 328.

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해력으로만 납득될 수 있는 것이다. “(영광과 성공을 본성으로 하는) 혈과 육에게 이것은 가장 큰 스캔들이다.”<sup>12)</sup> 칼뱅의 수사학은 정치적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칼뱅이 키케로의 수사학과 갈라지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칼뱅은 어떤 점에서 키케로와 연관성을 가지는가? 브린은 스콜라주의와 칼뱅의 결별을 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칼뱅은 스콜라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삼단논법이 아닌, 연역법의 두 부분만 사용하는 생략 삼단논법을 사용한다.<sup>13)</sup>

대전제 :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권녕하시기 원하신다.

(생략된 소전제 : 영웅적인 능력의 인물은 인간에게 유익하다.)

결론 :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지배자가 될 사람에게 영웅적인 성품을 부여하신다.

칼뱅 저술을 살펴보면 삼단논법보다는 과감한 논리의 생략, 더 나아가 비약과 반대되는 내용의 상충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칼뱅은 인간의 지혜가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믿지 않았으나,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루터와 칼뱅의 차이이다. 루터의 작품에서는 인문주의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 그러나 칼뱅은 인문주의를 활용할 수 있는 한 최고로 활용하여, 저술과 신학 분야에 루터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수잔 셀린저(Suzanne Selinger)는 칼뱅이 루터를 근간하여, 세속적인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통합했다고 본다. 이 이원론은 칼뱅 안에서 늘 내재해 있고, 이것이 그에게 모순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그의 신학을 조절하고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sup>14)</sup> 칼뱅 안에서 세속 수사학은 효과적인 전달과 교육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

용된다. 그렇다면 과연 칼뱅은 그의 작품 속에서 수사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인가? 그 예를 살펴보자. 세렌 존스(Serene Johnes)는 칼뱅이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활용하여, 중의적인 논리를 전개시켰다고 본다. 「기독교 강요」 1장의 이중지식론에서<sup>15)</sup> 칼뱅은 자연철학에서 등장할 법한 이슬, 샘 근원 등의 이미지들을 나열하며 자기 지식의 논리를 강화한다. 이어서 신지식을 타당성으로 넘어갈 때는 한편으로 ‘또한’ 이중 의미를 지닌 접속사 ‘rursum’을 사용하여, 앞의 내용을 부연하거나 반대로 뒤집을 수 있는 이중적인 논리를 구성한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utcunque’(그러나)를 사용하면서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는 신지식에 있음을 강조한다. 칼뱅은 왜 앞에서 불필요한 자기 지식의 타당성을 전개했을까? 존스는 칼뱅이 자기 지식을 우선순위에 놓는 인문주의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분석한다.<sup>16)</sup> 칼뱅은 고대 수사학의 이상처럼 독자의 설득과 교육을 위해 주의 깊게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뱅의 저술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 보아도 방금 전까지 서술한 내용과 반대의 진술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비논리적으로 여겨지겠지만, 수사학 안에서 이런 진술들이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설득의 힘을 갖게 된다. 칼뱅의 수사학의 백미를 보여 주는 「사돌레토에게 보낸 답신」(1539)의 첫 부분에서 칼뱅은 사돌레토의 학식과 인품을 칭찬한다. 그러나 그의 동기가 파헤쳐지면서 가차 없는 공격과 비난으로 이어진다.<sup>17)</sup> 이러한 모순은 웃음과 해학을 자아낸다. 이러한 모순적인 내용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한다. 칼뱅 작품 안에는 이러한 이율배반 혹은 모순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수사

15) Serene Joh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Kentuc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pp. 106–107.

16) 위의 책.

17) James R. Payton, *History as Rhetorical Weapon : Christian Humanism in Calvin's Reply to Sadoleto : Calvin's Early Writings and Ministry*(ed., Gamble Richard, New York & London, 1992).

18) Emile Doumergue, 이오갑 역,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9), p. 47.

12) 박건택, 「칼뱅작품선집 VI」(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0), p. 506.

13) Quirinius Breen, *Christianity and Humanism*(Mic : Wm. B. Eerdmans, 1968), pp. 122–123(*Inst.* 2.3.4).

14) Suzanne Selinger, *Calvin against himself*(Connecticut : Archon Book, 1984), p. 3.

학적 기술은 과장(epideitic)의 기술이다. 과장적 담론으로써 「기독교강요」는 찬사와 흑평, 찬양과 비난의 화법을 갖는다.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인간의 덧없음과 오만을 비난한다. 브린은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수사학 담화를 과장적(epideitic)이며, 심의적(deliberative)이고, 법정적(forensic) 담화로 분류했다.

심의적 담론으로써 「기독교강요」는 독자들이 심사원이 되게 한다. 칼뱅은 독자를 모든 일의 심판자로 부른다. 법정적 담화에서 칼뱅은 고소와 변호를 위해 고발자의 방식을 취한다. 칼뱅은 종교개혁 신앙에 대한 비방자와 고소자에 대항하여 소송을 일으킨다.<sup>19)</sup> 법학에 정통한 칼뱅에게 심의적·법정적 수사학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대적자들을 법정의 심의대에 앉힌다. 그리고 날카로운 검사의 입장에서 수사해 나간다. 법학과 수사학이 잘 결합하여 칼뱅은 개혁사상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고, 또 반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응수한다. 또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가며 개혁사상을 펼쳐 나간다.

### 3) 「교회개혁의 필요성」의 독자층과 서문 연구

작품의 독자층을 추적하는 것은 작품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독교강요」의 서문을 통해 독자층을 연구하는 방식은 브린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네 종류의 독자를 추출해 냈다. 1. 칼뱅이 지도하기 원했던 학생들, 2. 칼뱅이 그들의 신앙에 힘을 주고 위로하기 원했던 프랑스 성도들과 추종자들, 3. 그가 전환시키기 원했던 인문주의 학자들과 귀족공동체, 4. 그가 공격하고 몰아내기 원했던 다양한 적들.<sup>20)</sup> 「교회개혁의 필요성」은 이 목록 중에 한 가지, ‘정치가들’을 덧붙이게 된다.

「교회개혁의 필요성(1543)」의 원제목은 아래와 같다. *Supplex Exhortatio,*

*ad invictiss Caesarem Carolum Quintum: Et Illustisfs. Principes, ali fque ordines, Spirae nunc imperii conuentum cgentes. Ut restituenda Eccleiae curam ferint fufcipere. Eorum omnium nimine edita, qui CHRISTUM regnare cupiunt*(교회개혁의 필요성). 지금 슈파이어에서 제국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최고 무적의 황제 카를 5세와 가장 뛰어난 군주들, 그리고 기타 신분의 인사들에게 드리는 탄원적인 권면. 그들이 교회개혁의 직무를 진지하게 담당하고자 하기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제출함.<sup>21)</sup> 칼뱅은 일차적으로 제목을 통해 자신이 쓰고 있는 논문이 카를 5세와 군주들을 향해 쓰였음을 밝힌다. 그렇다면 카를 5세와 군주들이 이 저술의 궁극적인 독자층일까?

부씨가 칼뱅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칼뱅이 카를 5세에게 글을 쓰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다는 것이다. “그대의 예고에 따라 나는 황제에게 글을 쓰는 것이 적합한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바랍니다. …… 그대는 그대가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황제에게 쓰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것입니다. 황제에게 쓰는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모일 왕들과 군주들에게 쓰십시오. 나는 또한 그것이 제때에 책으로 인쇄되기를 바랍니다.”<sup>22)</sup> 이 편지를 받기 전 칼뱅은 황제의 정치적 행보를 어느 정도 예측했었고, 부씨에게 그것을 ‘예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씨는 칼뱅이 황제에게 글 쓰는 것이 정 내키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모일 군주들과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라고 권면한다.

그렇다면 칼뱅이 염두해 둔 실제 독자층은 누구일까? 이것은 이 글이 출간된 이후 칼뱅의 행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543년 12월 책 출간 이후 부씨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했고,<sup>23)</sup> 이듬해 4월 그중 한 권을 멜란히톤에게 보내며 은근히 루터의 반응을 기대한다.<sup>24)</sup>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진영, 특히 루터파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칼뱅이 원했던

19) Quirius Breen, *Christianity and Humanism*(Mic : Wm. B. Eerdmans, 1968), pp. 114–119.

20) Serene Joh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Kenturc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p. 53.

21) 박건택, 「칼뱅작품선집 Ⅲ」(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p. 335.

22) 위의 책, 21(CO, XI, 634–635 재인용).

23) 위의 책(CO, XI, 689 재인용).

24) 위의 책(CO, XI, 697 재인용).

대답은 1545년 8월 3일자 비텐베르크에서 프란체스코 엔치나스(F. Enzinas)가 보낸 한 통의 편지에 있다. “그대는 제국 의회에 제출한 그대의 글에 대한 우리 쪽 지도자들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루터는 그것을 읽었고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필립(멜란히톤)도 매우 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매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으로 말하면, 나도 당시 내가 있던 감옥에서 이 글을 읽고 위로를 받았는바, 실로 이전 보다 더욱 죽음에 대해 준비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sup>25)</sup> 칼뱅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위해 카를 황제에게 글을 쓰지만, 실상 반응을 기대하는 실제 독자층은 개혁파 진영이었다.

칼뱅이 글을 쓰기 위해 고심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분열된 개혁파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자신 역시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록’이나 ‘레겐스부르크 회의’에 대해서도 가톨릭 진영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타협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일치된 목소리를 갖는 것은 칼뱅에게 있어서 일종의 난제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 개혁진영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인정받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부담감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의 서문에서 잘 나타난다. 칼뱅은 자신이 이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제국의 지도자들이 “정신 나갔다.”, “분별없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그렇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목소리에 의해 표명된 것’으로 받아 달라고 부탁한다. 칼뱅은 자신이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지만’, ‘탁월한 도시국가들이 이 명분에 속해 있으며, 나를 통해 한목소리로 말하는 이는 바로 그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 세계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 사람들에 덧붙여서 기독교 세계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나와 더불어 이 탄원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무수히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첨가하여 주십시오.” “요컨대 이 글을 현 교회의 타락을 너무도 심각하게 한탄한 나머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무슨 개선책이 보이기까지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들의 일치된 진술로 간주하여 주십시오.”<sup>26)</sup>

칼뱅은 「교회개혁의 필요성(1543)」의 서문을 통해 그의 전형적인 수사학적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기독교강요」의 서문인 ‘프랑수와 1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처럼, 카를 대제와 제후들을 판결을 요하는 심의관으로 앉히는 심의적 수사학을 구사한다. 그 심의관은 카를 대제뿐만 아니라 제국의 지도자이며, 이에 대한 중언자는 자신을 필두로 하는 확장된 독자층인 프로테스탄트 내의 교회 지도자들이다.

칼뱅은 심의적 담론을 통해,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카를 5세를 논의의 핵심으로 초대한다. 또한 분열되어 있는 개혁파의 지도자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에 서게 한다. 심의관과 중인들의 정치적 동기와 사상들이 다르기에 무엇인가 특별한 전략적인 구조가 채용되어야만 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당대의 역사적 배경, 구체적으로 정치적, 신학적인 배경을 좀더 이해하도록 하자.

### 3. 「교회개혁의 필요성」이 저술된 역사적 배경

#### 1) 정치적·신학적 상황

텍스트의 깊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쓰인 역사적인 배경들을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칼뱅은 왜 카를 황제에게 글 쓰는 것에 관해 회의적이었을까? 우리는 당대의 역사적, 신학적 상황을 통해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칼뱅이 당대 정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제네바로부터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에서 체류한 기간 덕분이다. 당시 독일의 제후들에게 루터의 개혁사상은 매력적인 것으로, 로마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워 주었다. 신성로마제국의 카를(Karl) 황제는 초반부에는 지역 제후들에게 자유로운 정치적 결정권을 주는 관대함을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25) 위의 책, p. 21(CO, XII, 127 재인용).

26) 위의 책, pp. 336–337.

루터 사상을 역이용하여 교황에게 압력을 주기 위한 견제의 동기가 있었다.<sup>27)</sup> 황제는 가톨릭과 대립한 상태에서 점점 더 세력을 키워 나갔고, 제국을 듣는히 세워 가기 위해 어떻게든 제국 내 종교의 통합을 원했다. 그의 통합의 방식은 가톨릭 신앙을 근거로 두면서, 개혁세력을 끌어안는 것이었다.

칼뱅은 이러한 황제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당시는 종교적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공의회가 열리고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보편 공의회를 요구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제는 교황이 소집하는 공의회보다,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지역공의회의 소집을 원했다. 이후의 이야기 이기는 하지만, 황제는 자신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1546년 독일의 개혁파 연합체인 슈말칼덴 동맹을 제거하고, 1548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 회의의 「가신조 협정」을 통해 개혁파에게 굴욕적인 화합을 요구한다. 칼뱅은 후에 이 협정에 반대하는 「참된 교회개혁의 방식」(*Vera christiana pacificationis et ecclesiae reformandae ratio*, 1549)을 저술한다.

이 모든 것은 독일의 독특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신성로마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영역은 독일에 국한된 것이었다. 루터의 개혁사상은 황제에게는 제국을 통합할 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제후에게는 도시국가로 독립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카를 황제는 1526년 제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제후들이 자신의 영토 내의 종교 문제를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었다.<sup>28)</sup> 이 결정은 독일 내 개신교가 다양하게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회의는 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결정된 종교적 관용을 유보하고, 다시 보름스 칙령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회의에서 수적으로 불리했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제후들은 이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로 ‘항거’(protest)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루터파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후 개혁파 제후들은 정치적인 의도로 연합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차이로 일치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 2차 슈파이어 회의 이후 대표적인 프로테스탄트인 헷세 제후 필립(Phillip

of Hesse)은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일치를 위해 1529년 9월 말부르그 담화(Malburg Colloquy)를 마련했으나, 성찬에 관한 루터와 츠빙글리(Ulich Zwingli)의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만다. 성찬론은 개혁파의 일치에 중대한 걸림돌이었다. 이때만 해도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은 츠빙글리의 입장에 반대했고, 외콜람파디우스(John Oecolampadius)와 마틴 부씨는 중재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카를 대제는 1530년 다시금 정치적인 이유(비엔나를 포위한 터키인들의 위협)로 제국의 연합을 시도한다. 그는 이 연합을 통해 터키인들과 로마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멜란히톤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Augsburg Confession)를 작성하는 책임자로 적극적인 화해를 모색했다.<sup>30)</sup> 이 고백서는 카를 대제의 반대뿐만 아니라 스위스 개혁파들의 반대를 자아내나, 루터파 제후들에게 승인되면서 개혁파의 신학적인 분열이 더 복잡해져 갔다.

신학자들의 분열양상과 더불어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정치적 국면도 복잡해져 간다. 이듬해 1531년 2월, 루터를 지지하는 6명의 제후와 10개의 도시가 슈말칼덴 동맹(Schmalkaldischer Bund)을 결성하고 카를 대제에 대항한다. 이때부터 10년가량, 황제는 남부 유럽을 지키기 위해 독일의 종교 문제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1539~1540년 사이 드디어 독일 사태에 대해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었고,<sup>31)</sup> 제국의회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다.

## 2) 지방종교회의와 독일의 개혁파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망명해 있던 시기,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하겐나우(Hagenau), 보름스(Borms),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시의회에서 신교도와 가톨릭이 주최한 종교회의가 열렸고, 칼뱅은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보름스 회의는 멜란히톤과 에크의 원죄에 대한 공개토론으로 시작되는데, 황

27) Hagen Shulze, *Kleine Deutsche Geschichte*, 반성완 역(서울 : 지와 사랑, 2006), p. 66.

28) 위의 책.

29) William Estep, 라은성 역,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그리심, 2002), p. 312.

30) 위의 책, p. 315.

31) Marry Fullbrook, 김학이 역,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개마고원, 2001), p. 77.

제의 칙령에 의해 이 회의는 중지되고, 레겐스부르크 시의회에서 회의를 계속 할 것을 명령한다.<sup>32)</sup>

칼뱅과 멜란히톤이 만난 것은 1539년 칼뱅이 프랑크푸르트 회의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했을 때였다. 그는 멜란히톤을 만나 박해 받고 있는 프랑스 인들을 탄원하고자 했다. 이후 칼뱅은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스트拉斯부르 시의 위임을 받아 참석했고, 파사우(Passau)의 모사무스 학장을 물리쳐 루터파 신학자들로부터 ‘진정한 신학자’라는 칭호를 얻었다.<sup>33)</sup> 레겐스부르크 회의 때도 스트拉斯부르 대표자로 멜란히تون의 요청에 따라 참석했다. 그러나 이때 역시 회의에 대해 비관적이었고 이 모든 일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sup>34)</sup>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 원죄와 의지의 노예성에 관한 교리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 가톨릭은 이신칭의의 복음주의적 견해에 동의했고, 성찬식 때 잔을 주는 것까지 양보를 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와 성찬 교리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구교와 신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었다. 칼뱅은 회의에서 화체설에 관한 반대 의견을 라틴어로 제시했다. 그는 화체설이 스콜라적 허구라고 간주하고, 성체숭배가 우상숭배라고 반대하였다. 그리고 멜란히톤과 부씨의 동기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굴종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꼈다.<sup>35)</sup>

칼뱅은 레겐스부르크 회의 때만 해도, 신교와 구교를 화합시키기 위한 멜란히톤과 부씨의 노력이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칼뱅은 결국 부씨와 멜란히톤의 소망을 저버리고 스트拉斯부르로 가 버리고 만다. 그리고 레겐스부르크 회의록에 대한 소견은 출판하고

— 레겐스부르크 시, 즉 라티스본이라 불리는 도시에서 개최된 의회 회의록, 1941년. 오늘날 종교 속에 있는 차이점에 관하여 다름<sup>36)</sup> — 그 결과에 대해 비례에게 편지한다. 이 회의는 칼뱅의 예상대로 끝이 났다. 종교적 평화도 얻지 못하고 교회 공의회로 문제를 이양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sup>37)</sup> 하게나우, 보름스, 레겐스부르크 회의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칼뱅은 당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칼뱅은 계속적으로 뇌샤텔의 파렐에게 사소한 사항까지 통지했다.<sup>38)</sup> 그는 정치가들을 신뢰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고, 그것을 이용할 만큼 교활하지도 않았다. 그는 정치적 사안들이 밀접하게 결부된 일련의 종교회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구교와 신교의 일치는 이미 불가능하고, 신교 내의 종교적 합의 역시 비관적이며, 정치적 압력이 배제된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 교회 공의회의 시행도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칼뱅은 제국회의 안에서 종교회의의 한계를 인식했다. 그리고 칼뱅의 예측처럼 레겐스부르크 제국의회는 소득 없이 끝나 버렸다.

### 3) 수사학적 전략의 요구

이런 회의적인 상황 속에서 칼뱅은 이듬해 2월에 열리는 슈파이어 제국회의에 로마 가톨릭과 신교도의 현재 상태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위협 받는 독일의 개혁 진영의 수호를 위해서, 카를 대제와 독일 제후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다. 칼뱅은 황제의 정치적 고민이 무엇이든 간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개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혁파에 대해 변증적인 글을 쓰기로 작정한다. 루터 이후 개혁파는 교회의 비참함을 위해 싸워 왔다. 개혁파에 관한 변증은 루터 이후 개혁파가 제안한 치유책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칼뱅은 이를 위해 현재

32) W. De Greef, 황대우 역, 「칼뱅의 생애와 저서들」(서울 : SFC, 2006), p. 238(CO, 1 : 145–47–644).

33) Phillip Schaff,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p. 318(Opear, XXI, 130 베자 재인용).

34) 위의 책, p. 319(1541년 2월 19일 파렐에게 보내는 편지 재인용).

35) 위의 책, pp. 320–321(1541년 5월 11일 파렐에게 보내는 편지 재인용).

36) CO, 5 : 509–684.

37) W. De Greef, 황대우 역, 「칼뱅의 생애와 저서들」(서울 : SFC, 2006), p. 240.

38) Phillip Schaff,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p. 318.

의 비참한 교회의 상태를 폭로하며, 루터파의 치료책을 보여 줌으로 개혁파를 변증한다.<sup>39)</sup>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함께 취급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로 치료책을 찾게 만든 악습들을 간단히 열거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쪽 사람들이 사용한 바로 그 치료책이 적합하고 유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태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칼뱅은 현실의 진단과 이에 따라 개혁파가 제시했던 치료책의 유익, 그 후 궁극적으로 제시될 개선책의 순서로 작품을 구성한다. 칼뱅은 궁극적으로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려는 듯 보인다. 칼뱅은 상황이 복잡한 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위한 수사학적 여정을 시작한다.

#### 4. 「교회개혁의 필요성」의 수사학적 분석

##### 1) 말의 풍부와 모방 사용

###### (1) ‘몸과 영혼’ 수사학적 전략과 칼뱅의 이원론

칼뱅의 수사학을 이해하기 위해 키케로로 잠시 돌아가자. 키케로는 풍부한 언어 창고에서 가져다 쓰는 풍부한 연설에 대해 ‘말의 풍부’(Copia)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의 풍부와 밀접한 단어로 모방(imitatio)을 들 수 있다. 이 모방은 단순히 과거의 것에 대한 반복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흡수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된다.<sup>40)</sup> 칼뱅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신화, 성경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흡수하고 발전시키고, 자신의 작품 안에서도 반복, 발전되는 이미지

39) 박건택, 「칼뱅작품선집 Ⅲ」(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p. 338.

40) Serene Joh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Kenturc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p. 19.

들을 사용했다. 칼뱅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비는 잘 알려져 있는 ‘몸과 유비’의 이미지이다.

칼뱅이 「교회개혁의 필요성」에서 구체적인 현실의 진단과 문제점을 나열하기 위해 ‘몸과 영혼’의 이미지를 도입한다. 칼뱅은 자신이 논증하게 될 기술의 순서를 밝히면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교회의 통치와 목회의 직무, 그리고 그 밖의 질서가 성례와 함께 몸에 비유된다면, 한편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인간의 양심으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근거를 지시하는 교리는 영혼인 바, 바로 이 영혼이 몸에 호흡을 주며, 몸을 활기 있게 하고 활동하게 하며, 요컨대 몸으로 죽어 무용한 시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sup>41)</sup>

교회의 통치와 목회의 직무, 성례는 기독교의 몸이며, 예배의 규칙과 교리는 영혼이다. 우리는 이 유비를 볼 때 칼뱅의 국가, 교회론을 떠올릴 수 있다. 칼뱅에게 몸과 영혼의 관계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이기도 했다. 이 이분법적 유비는 「기독교강요」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은 이중적인 통치 지배하에 있다”(duplex in homine regimen).<sup>42)</sup>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는 사회 내에서 교회의 후원자가 된다.<sup>43)</sup> 칼뱅은 유비를 통해 제국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모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일종의 수사적 전략인 것이다.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 영적인 관할권과 세속적인 관할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부적절한 용어들은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종류의 통치는 영혼에 속한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종류의 통치는 현세의 삶과 연관된 것들, 즉 음식이나 옷

41) 박건택, 「칼뱅작품선집 Ⅲ」(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p. 339.

42) *Inst.*, 3.19.15 ; 4.20.1. 이 내용은 1536판에 6장에서부터 나타난다.

43) 안인섭, “칼빈의 교회와 국가론,” 「칼빈연구 3집」(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pp. 270-271.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거룩하고, 존귀하고, 절제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 법들을 제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sup>44)</sup>

칼뱅은 (두 가지가 바르게 시행되는 한) 국가의 통치와 교회의 통치,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통치가 대립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칼뱅의 이원론, 혹은 절충주의자 칼뱅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면이다.

국가의 통치는…… 하나님께 외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훈과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고, 우리의 생활을 인간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시민의 의에 맞추어 형성하며,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한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sup>45)</sup>

칼뱅은 왜 국가와 교회의 이미지인 봄과 영혼의 유비를 사용했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칼뱅은 가장 핵심적인 치유책을 제시하는 수사학적 구조물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칼뱅의 수사학의 꽃인 봄과 영혼의 유비로 출발한다. 칼뱅은 이 유비를 통해 국가 조직과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결합하는 칼뱅의 이원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관계가 늘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불의한 집권자’와 ‘악한 왕’이라는 장애물이 주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 또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권한’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의 국가 통치론의 결말 부분에서 자신이 애써 통합시킨 이원론이 가질 수 있는 모순을 숨기지 않는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완곡한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난다. 결국 세상 왕의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위에 존재하게 된다. “주님은 왕들의 왕이시며, 그가 거룩한 입을

여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도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권위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 안에서만 복종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것을 명령하면 그 명령을 무시해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통치자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위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엄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참으로 최고인 권세 앞에서 낮추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sup>46)</sup>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동등한 균형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에는 영적인 것으로 비중이 옮겨진다.

법은 왕의 악행을 견제하는 도구이다. 법학자로서 칼뱅은 제네바의 입법에 관여하며, 이 긴장을 해소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렇게 조화로운 통치는 쉽지 않다. 칼뱅은 지상의 왕권에 복종해야 하는 긴 이유들을 설명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상승해 버린다. 이원론의 모순은 극대화된다. 한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은 수사학의 논리가 아니고서는 통합되기 어렵다. 법학자로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통합한 칼뱅은, 수사학자로서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한다. 현실 속에서 칼뱅은 이 이원론 중 어느 편에 기울어져 있는가? 칼뱅은 국가 권위에 순응하는, 권력에 길들여진 응변가였는가? 이 답은 수사학적 구조물이 완성될 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2) 루터 인용

본문에서 칼뱅은 고전 철학가, 문학가들에 대한 인용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인간의 생명이 영혼에 달려 있는 것처럼 교회의 구원은 교리에 달려 있는 것”이며, “만일 교리의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진다면, 교회는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것”이다.<sup>47)</sup> 여기서 교리(영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기독교강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플라톤적인 개념은 아니다.<sup>48)</sup> 이에 대한 증거는 칼뱅에 연이은 설명에 나와 있다. “이제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44) *Inst.*, 3.19.15.

45) *Inst.*, 4.20.1.

46) *Inst.*, 4.20.32.

47) 박건택, 「칼뱅작품선집 Ⅲ」(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p. 352.

48) *Inst.*, 1.15.6.

서 경건한 사람들과 바르고 견진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본문 내의 진술을 통해, 이 글이 학식 있는 자들, 즉 플라톤을 이해하고 있는 인문주의자들을 향한 수사학적 전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본문은 대부분 성경 인용과 교회사 인용, 교부, 속담들이 사용될 뿐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며, 교부 외의 인물로는 루터이다. 루터의 사용은 특이할 만한 것으로 다른 저술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다. 칼뱅은 루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독일의 제후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특히 루터는 암흑의 시대에 개혁을 위해 나타난 선두주자로 기술된다.

하나님께서 초기에 루터와 다른 이들을 일으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비추도록 횃불을 들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들을 세우고 건립하셨을 때, 우리의 종교의 진리와 순하며 합법적인 하나님 예배와 인간의 구원이 포함된 주요 교리들이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습니다.<sup>49)</sup>

‘루터와 다른 이들’은 암흑의 시기에 교리의 구원에 출발자가 되었다. 이들은 교리가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 몸과 영혼, 교회와 교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들이다. 칼뱅은 독일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독자들에게 회상시킨다.

칼뱅은 독자들이 루터에게서 시작된 몸(교회)과 영혼(교리)의 치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밝힌다. 그러면서 자신을 ‘루터와 다른 이들’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 급박한 개혁의 필요성을 이어 나가는 자로, 한 프랑스 인인 개인에서,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로 위치시킨다.<sup>50)</sup> 그리고 그 위치에서 부당하게 처해졌던 개혁파에 대한 고발을 변호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과거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교리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고백 가운데

49) 박진택, 「칼뱅작품선집 Ⅲ」(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p. 338.

50) 위의 책, p. 337.

명백하고 정직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이 준비는 칼뱅이 스트拉斯부르 시절에 참여했던 보름스를 비롯한 일련의 종교회의에서 제시한 개혁파 고백서일 것이다.<sup>51)</sup>

칼뱅은 제네바 망명 후, 스트拉斯부르, 그리고 보름스, 하계나우, 레겐스부르크의 회의 등 일련의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이 진영의 해설자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교회개혁을 이루어 가는 주춧돌로써,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제시한다. ‘빛’은 개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반복되어 나온다. 이 빛은 암흑을 밝힌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개신교 연합에게로 이어진다.

## 2) 악습의 열거와 이에 따른 개혁파의 치료책

### (1) 영혼의 치유

이제 이 글의 본론으로 들어가자. 칼뱅은 먼저 부패한 영혼(교리)에 대해 고발한다. 종교개혁의 필요성에서는 교리의 내용 중 예배가 먼저 다루어진다. 예배는 칼뱅에게 변함없는 우선순위이다. 성자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성상승배, 연극적인 전례의식, 회개 없는 고행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의적 승배’(*εθελοθηκειαν*)이다. 칼뱅은 예배의 타락에 있어서 세밀한 교리적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예시에 집중하는데, 그 해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기술 방법은 「성해론(1543)」과 유사하다.

두 번째로 고발되는 교리는 구원론으로 타락의 양상을 축소함, 행위 구원, 은총의 불신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칼뱅은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 독자들, 즉 제국의 정치가들을 의식한다. 칼뱅은 신학적 논쟁보다는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강조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이제 몸(교회)의 문제는 성례로 넘어간다. 미사와 봉헌이 상점에서처럼 팔려나가고, 미신과 주술처럼 행해진다. 두 번째로 교회 통치는 도덕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고소된다. 성직 매매와 성직자들의 도덕적 부패, 신자를 예속 상태에

51) 위의 책, p. 363.

묶어 두는 폭정이다.<sup>52)</sup>

칼뱅은 이어서 말한다. “자신의 모든 말을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으라고 명령하는 일처럼 신하의 인내를 무제한 남용하는 자가 엄청난 폭군이 아닐까요?” “이러한 권세로 무장한 그들은 신자의 영혼을 얼마나 가혹하고 부당한 예속 상태에 묶어 두었는지” 볼 수 있다.<sup>53)</sup> 칼뱅은 교황의 수위권을 고발하기 전에, 지역 교회 권력의 폭정과 신자의 예속 상태를 고발하는 법정적 수사학을 구사한다.

이러한 악습의 인식에 치료책 역시 교리(예배, 이신칭의 교리)와 교회(성례, 교회 정치) 순으로 기술이 되는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배와 교회 정치의 부분이다. 제국의회가 신학 토론장이 아닌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칼뱅은 교회정치의 부패와 타락한 도덕성을 폭로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다.

칼뱅은 개혁파가 단순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현실을 말한다. 로마의 미사는 인간의 육적 본성을 만족시키는 화려한 예식들의 기교이며, 영원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잊어버리게 한다.<sup>54)</sup> 칼뱅이 주장하는 예배 회복의 강조와 치료책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배개혁은 교회개혁의 중심이다. 칼뱅은 개혁파가 “진정한 회개와 간신을 권면하며, 이에 따르는 외적 의무와 사랑의 행위를 교리의 개선책으로 내놓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실하고 무오한 예배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제사”이다.<sup>55)</sup> 기도에 있어서 치유책은 성인의 중보기도를 버리고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대중의 언어로 기도하며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다.<sup>56)</sup>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을 통해 어려움 없이 증

명한다.”<sup>57)</sup> 인간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원죄의 세력을 가볍게 만든다. 전적 타락과 인간의 무능력은 참된 겸손을 가르쳐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며,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돌리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의는 전가되는 궁휼에 의한 것이므로, 육신의 자랑은 배제된다. 인간의 의를 의지할 때 불안정하게 되며, 양심의 불안을 신앙의 첫째 공리로 삼는 것은 불안정하다. 통회와 추징금으로 구성되는 보속은 혓된 노력이며,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죄를 해결해 주신다. 심지어 인간의 행위조차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게 된다.<sup>58)</sup> 칼뱅은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의를 철저히 부인한다. 인간의 의지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먼저 다가설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자유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이원론도 있을 수 없다.

## (2) 몸의 치유

교회와 관련해 성례에 대한 처방은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미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이 영혼의 교리의 부분에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성례의 부분이 몸(교회)과 관련된 것은, 예배의 부분이 영혼(교리)에 관련된 것과 비견할 만하다. 칼뱅에게는 예배란 외적 예배의 형식과 내적 예배로 구분된다. 칼뱅은 성찬과 세례 외의 다섯 가지 성례를 제외시킨다, 결혼은 예외로 둔다. 결혼 예식은 하나님께서 재정하셨으나 성례의 형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세례에 소금, 침, 초 등의 부가물을 물에 첨가하는 미신적 경향을 지적하며,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한 12세기 교회법 학자인 그라티아누스(Gratianus)를 언급한다. “말씀이 없었다면 물은 형식적 요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sup>59)</sup> 아래에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교회법은 칼뱅이 변론에 있어 주요하게 사용되는 근거이다. 칼뱅은 교회법을 근간으로 한 법적 대응으로 정당성을 옹호한다.

성례와 관련하여 칼뱅에게 어느 정도 까다로운 사안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성찬을 다룰 차례가 되었다. 다행히 제국 의회가 신학적 논쟁의 장이 아닌 것

52) 위의 책, p. 360.

53) 위의 책, p. 361.

54) 위의 책, pp. 371-372.

55) 위의 책, pp. 364-365.

56) 위의 책, pp. 375-380.

57) 위의 책, p. 382.

58) 위의 책, pp. 381-389.

59) 위의 책, pp. 381-391.

은 칼뱅에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칼뱅은 떡과 잔을 주님의 말씀대로 취하지 않고 전시하는 떡의 진설과 축성에 대해 비판하고, 개혁파가 성찬의 목적과 효과, 유익, 사용법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있음을 밝힌다. 성찬이 내적으로 취하는 영적 음식이며, 상징이기는 하지만 “성찬이 지시하고 있는 진리가 성찬과 결합”되고 있다.<sup>60)</sup> “성찬이 지시하고 있는 진리가 성찬과 결합되고 있다.”는 것은 상징설과 공재설을 모순 없이 화해시키는 완곡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뛰어난 수사학자인 칼뱅은 ‘임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요소를 피하고 있다.

교회 통치에 관한 치료책을 제시하면서, 칼뱅은 당시 교회 법령 중 개혁파가 가장 공격당하고 있었던 부분을 중언하고 있다. 1)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것, 2) 사제들의 결혼, 3)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것. 이에 대해 칼뱅은 이렇게 질문한다.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자가 해마다 연중 가리지 않고 여자를 사들이는 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 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사제가 결혼하는 것 이 백 번 간음죄에 빠지는 것보다 죄가 덜 무겁지 않은가? 일 년에 한 번 사제의 귀에다 고해하기를 태만하게 한 죄를 범한 것보다 하나님의 많은 계명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죄이지 않은가?”<sup>61)</sup> 칼뱅은 도덕적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 부당한 공격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대신한다. 응변술을 사용해 상대의 도덕적 타락을 공격함으로 논리의 우위를 점위하고 제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리적 우위를 점령한 칼뱅은 교회사의 역사적 근거, 특별히 교회법을 통해 개혁파의 정당성을 변호한다. 성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서품의 계승이 이미 제4차 아프리카 공의회(397년)에서 끊어졌다.<sup>62)</sup> 독신 서약 역시 360년 이집트 주교였던 바후누티우스가 개입함으로 해소되었다.<sup>63)</sup> 고해 역시 이노센트 3세 이전에는 의무가 부가되지 않았다.<sup>64)</sup> 칼뱅은 초대교회 아래로 교회법의 역사에 정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칼뱅의 수사학

은 단순한 문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법학과 응변술이라는 고대의 형식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마다 적절한 법의 활용은 법학을 근간으로 한 수사학적 훈련의 결과이다.

칼뱅은 몸과 영혼, 교리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현재의 문제와 치유책을 제시했다. 이 치유책은 개혁파가 지난 시간 동안 이루어 온 것이다. 이 몸과 영혼의 유비는, 아직 표면상으로는 교리와 교회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 유비가 서서히 결론부에 이르러, 국가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려고 한다.

### 3) 수사학적 결말

#### (1) 탄원과 궁극적 호소

칼뱅은 자신이 제시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진단과 개혁파가 제시했던 치료책 뒤에, 다시금 부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다. 루터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개혁진영까지 모두가 치유책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일으켰다는 책임을 전가 받는다. 그리고 현재의 타락상을 고발함으로 다시 한번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짧은 진단에서 더 깊은 진단으로 들어간다. 성직자와 예배, 교회 통치의 타락을 요약, 정리한다. 개혁파에 대한 중상모략에 대해 분노의 감정은 더 격해진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처음의 진단에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칼뱅은 왜 이러한 부연을 덧붙였을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칼뱅의 결론 부분에 나타나 있다. 칼뱅은 결론을 시작하면서 ‘몸의 상태’(교회 통치)에 나왔어야 할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교황의 수위권과 공의회의 문제를 꺼낸다. 칼뱅은 왜 마지막 부분에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이야기하는가? 여기에는 칼뱅의 치밀한 수사학적 전략이 담겨 있다.

교황의 수위권과 관련하여 칼뱅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치료책은 바로 지역 공의회였다. “나는 참으로 현재의 악을 시정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의 모든 군주와 백성들이 함께 거룩한 동맹을 결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sup>65)</sup> 칼뱅의 궁극적인 개선책은 개혁파의 종교적 연합이었다.

60) 위의 책, pp. 393–395.

61) 위의 책, p. 406.

62) 위의 책, p. 397.

63) 위의 책, p. 411.

64) 위의 책, p. 413.

칼뱅은 아껴 두었던 공의회에 대한 본심을 쏟아 놓기 시작한다. 로마의 관심은 ‘교회의 구원이 아니라 독재적 지배의 유지’이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 공의회를 지연하려 하며, 공의회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 더 나아가 지역 교회의 심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칼뱅은 지역 공의회의 정당성과 관련한 교회사의 예로, 도나투스(Aelius Donatus)와 펠라기우스(Pelagius)를 다루었던 아프리카 지방 회의를 다루고, 아우센티우스(Auxentius)와 싸운 암브로시우스(Ambrosius)의 사례를 든다. 그리고 황제에게 권면한다. “황제 폐하시여, 이러한 전례를 보더라도 폐하께서는 제국을 거룩한 일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방법을 취하는 일을 결코 금지 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sup>66)</sup> 칼뱅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들을 회의에 소집하기 위해 때로 회의를 지연하거나,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특사로 파견하는 교황의 술수를 잘 알고 있었다. 황제는 교회개혁을 방해하는 악한 이들의 술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한 지역 회의를 통해 새로운 개혁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칼뱅은 로마의 보편 공의회로부터 탈피한 지역 공의회를 제안한다. 그렇다고 칼뱅이 지역 공의회를 더 선호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신성로마제국의 제국 의회와 관련한 특별한 경우이다. 이후 칼뱅은 토마스 클랜머(Thomas Cranmer)가 제안한 전체 복음주의 교회 대회에 참석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대항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칼뱅이 이 회의에 대찬성을 했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 번 바다를 건너야 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칼뱅의 말대로 16세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피를 흘리게 내버려 두었다”.<sup>67)</sup>

칼뱅은 황제에게 교회개혁의 수단으로 지역 공의회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공의회가 이듬해 있을 제국 의회가 되기를 바랐다. 이것이 ‘최후의 파멸을 향하여 이미 반쯤 기울어진’ 현실에 대한 최후의 치유책이며, 황제에게

65) 위의 책, pp. 468-469.

66) 위의 책, pp. 469-475.

67) Parker, T. H. L.,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p. 271(OS 14, 313-314 재인용).

주는 탄원적인 권면이었다. 칼뱅은 독일이 프랑스처럼 종교적 자유를 잃게 될 최악의 상황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명민한 칼뱅은 이후 있을 독일에서의 개혁진영의 후퇴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 (2) 교회개혁의 우위성

칼뱅은 황제에게 부성 어린 권면을 계속한다. 칼뱅은 터키인들의 침략의 원인이 교회의 부패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본다.<sup>68)</sup>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속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는 불의에 분노하고 그것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칼뱅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개혁이다. 교회개혁은 사회개혁에 선행하는 것이었고,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교회개혁에 있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개혁이 필요한 이유였다.

칼뱅은 불안해하고 있는 카를 대제의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황제는 신성로마제국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 이국의 침공을 이겨내려고 한다. 황제에게는 애초에 제국의 안정이 중요할 뿐, 교회개혁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 모든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칼뱅은 결코 정치적 의도에 희생되거나, 신학적으로 타협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칼뱅은 특별히 고안된 수사학적 구조물로 황제를 설득해야만 했던 것이다.

칼뱅의 개혁의 당위성을 길게 서술한 뒤에야, 자신의 본래 의도를 밝힌다. 이러한 수사학적 장치를 통해, 정치에 교회를 이용하려는 황제를 교훈한다. 칼뱅 자신의 연약함, 심적 부담감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이 일(교회개혁)에 동참하도록 카를 대제와 제후들을 초청한다. 만일 정치가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파멸이 곧 다가올 것이다”.

나는 현실의 거대함과 무거움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또는 말로만 꾸미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세밀히 살피시고 검토하여 주는 것 이상으로 보다 좋은 방

68) 박건택, 「칼뱅작품선집 Ⅲ」(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p. 485.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 도대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가 상처 받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 둘째 벌써 더욱 가혹한 재난이 이미 임박해 있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즉시 개입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파멸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칼뱅이 예고하고 있는 파멸은 “독일 안에서 교회의 윤곽조차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sup>69)</sup> 칼뱅의 이런 예언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이후 독일 내의 개혁파의 입지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신성로마제국의 짧은 영화도 사라지게 된다. 칼뱅은 국가가 구원 받는 것은 정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 사회 개혁을 위한 시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교회 내의 정결함의 회복이다. 교회가 소금과 빛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의해 밟혀지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칼뱅이 기독교 국가의 이상을 펼친 곳은 제네바라는 한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회가 타락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개혁보다 교회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들이 연합되어야 한다면, 국가 내의 권력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집결이 아니라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 몸과 영혼의 유비는 교회와 교리의 관계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된다. 칼뱅은 이러한 수사학적 확장을 통해 황제를 교훈한다.

### (3) 개신교 연합을 위한 전략적 수사학

칼뱅은 지역 공의회를 통해 개신교 진영의 일치를 조심스럽게 탐진하고 있다. 다소 정치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해 내는—세속 수사학의 사용이 그러했듯이—특유의 이원론을 가지고 전략적 수사학을 개발했다. 이것은 정치적 야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교회 개혁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개혁 세력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 세력에 대항한 정치적인 생존의 목표와 평화의 교리를 모

두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야겠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 된다. 칼뱅은 궁극적으로 개신교 진영을 통합하는 공의회 개최를 제안한다. 이것은 정치적 연합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높은 이상을 함께 실현할 종교적 연합체이다. 칼뱅은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종교개혁의 높은 이상을 잊지 않았다. 그의 수사학 안에서 정치적 변수를 뛰어넘는 국가와 교회의 이상이 녹아 있다.

같은 시기, 카를 황제는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의 목표는 세속의 제국의 안정과 통일을 위한 것이다. 카를 황제는 후에 아우구스투스로 임시 안을 통해 이를 완성했고, 칼뱅에게는 몹시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모든 이상이 다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뱅이 비교적 자유롭게 개혁의 이상을 펼칠 수 있었던 제네바 시는 특별한 경우였기에 흥미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결 론

지금까지 칼뱅의 저작을 통해 그의 수사학이 복잡한 정치적·신학적 사안들을 극복하고, 교회개혁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칼뱅의 수사학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칼뱅의 수사학이 오늘날에도 사용될 수 있는가?

우리는 칼뱅의 수사학을 다루기 전에, 수사학의 당위성을 묻는 고대의 논쟁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적어도 칼뱅의 수사학은 소피스트와 이소크라테스, 키케로를 통과한 수사학이다. 고대의 철학자들이 수사학을 두려워했던 것은 말의 기교를 통한 현혹, 선동성 때문이었다. 우리는 학문으로서 신학을 다루고 윤리 혹은 도덕성과 신학을 분리한다. 신학의 형식에서 조차 교리신학과 윤리신학을 분리한다. 그러나 세속 수사학자들조차도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응변가의 주장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았다.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들은 상대가 그것을 폭로할 때 논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심지어 세속의 응변가, 정치가들도 그러하다. 이것은 고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의 정치세계에서도 도덕적 하자는 정치생활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69) 위의 책, p. 483.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혹은 교단 정치에 관련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 관대하다. 심지어 노회법이 사회법보다 윤리적으로 못할 때도 있다. 사회에서 법적으로 유죄하다 한 것을 노회에서는 뇌물을 받고 무죄하다고 한다. 도덕적인 이상을 뛰어넘어 거룩을 논의 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보이며, 세상법에서 불법이라고 정의한 사안에 대해서 노회나 총회에서 합법이라고 판결한다. 총회와 교단정치에 금권이 오가는 것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학교와 교회는 침묵한다. 성도들은 그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조차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참아 내야 할 뜻이고, 공론화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시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신학이 옳다면, 도덕성이나 윤리의 부분도 옳다는 단순한 믿음이다. 신학과 설교, 교회의 가르침 자체가 교회의 타락과 거짓을 포장하는 말의 포장이 되어 버렸다. 신학 논쟁은 정치적인 제거와 숙청의 도구로 사용된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 논쟁은 교묘하게 사용된다. 더 고결한 신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추하다. 건전해 보이는 신학은 소피스트의 궤변과 같이 포장만 현란한 것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작태를 폭로하기 위해 심의적이고, 과정적인 담론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 불필요하게 온건하고 예의 바른 경향이 있다. 칼뱅은 노골적으로 불의와 타락을 폭로한다. 이것은 수사학을 뛰어넘는 예언자적 선포이다.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불순종이 가져올 파멸에 대해 정치가들에게 예언한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한국교회의 수사학은 아직도 고대의 수사학 논쟁에 머물고 있다. 세속의 사용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을 보였던 칼뱅에 비해, 한국교회는 영적인 것들을 설교하면서, 세속적 가치에 힘몰되어 있다. 칼뱅의 수사학 사용을 통해 배워야 할 우리의 교훈은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문제는 세속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 타락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칼뱅은 적절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디까지 세속적인 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를 보여 준다. 그는 세속 사용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갖는다. 아무리 뛰어난 세속적인 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한다. 늘 영적인 것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다. 이것이 칼뱅의 세속 사용의 원칙이다.

칼뱅은 세속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교회개혁은 국가개혁에 우선이 된다. 칼뱅의 수사학은 국가 권력의 일부가 되기 위해, 혹은 교회 정치권력의 일부가 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교회는 수도원의 고립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개혁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 만일 문명과 세상을 거부하고 신앙을 유지하려면 재세례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속 사회에 자리 잡은 한, 세속과 교회와의 거리와 관계, 세속 사용의 원칙은 잘 정립되어 혼돈이 없어야 한다. 신학과 가르침은 하늘을 뚫고 올라갈 만큼 이상적이지만, 성도의 삶과 교회의 실제 모습은 지극히 세속적이다. 세상은 나날이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칼뱅은 세속 사용에 있어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다. 수사학을 통해 본 칼뱅의 이원론, 칼뱅의 균형 감각은 세상 속에 자리 잡은 교회가 익혀야 할 교훈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Calvin, Jean. *Ioannis Calvin Opera quae supersunt omnia*(edited G. baum, E. cunitz, E. Reuss, 59vols Brunswick, 1866–1900).
- \_\_\_\_\_. 고영민 편역. 「기독교강요 1–4」. 서울 : 기독교문사, 2006.
- \_\_\_\_\_. 박건택 편역. 「칼뱅작품선집 Ⅲ」. 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 \_\_\_\_\_. 박건택 편역. 「칼뱅작품선집 Ⅵ」. 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0.
- Cicero, Marcus Tullius. *Cicero : Letter to Qunintus and Brutus to Octavian* (edited and Translated by D. R. Shackleton Bailey, London : Haverd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안재원 편역. 「수사학—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서울 : 길 출판사, 2006.

## 원서

- Benoit Girardin. *Rhétorique et Théologique*. Paris : Éditions Beauchesne, 1979.
- Bowsma, William. *John Calvin : A Sixteenth-Century Portrait*(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Breen, Quirinius. *Christianity and Humanism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8.
- Compier, (Don H.). *John Calvin's rhetorical Doctrine of Sin*. N. Y : Edwin Mellen Press, 2001.
- Jones, Sere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 Kenturc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Kriseller, P. O. *Renaissance Thought and Its Source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 Millet, Olivier. *Calvin et la Dynamique de la Parole-Etude de rhétorique réformée*. Paris : Editions Champion, 1992.
- Selinger, Suzanne. *Calvin against himself*. Connecticut : Archon Book, 1984.

## 국내 번역서

- Cottret, Bernard. 박건택 역. 「루터 칼뱅 웨슬리」(서울 : 솔로몬, 2004).
- De Greef, W. 황대우 역. 「칼뱅의 생애와 저서들」(서울 : SFC, 2006).
- Doumergue, Emile. 이오갑 역.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9).
- Estep, William. 라은성 역.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서울 : 그리심, 2002).
- Fullbrook, Marry. 김학이 역.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서울 : 개마고원, 2001).
- Parker, T. H. L.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3).
- Schaff, Phillip.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 Shulze, Hagen. 반성완 역. 「Kleine Deutsche Geschichte」(서울 : 지와 사랑, 2000).

## 아티클

- James R. Payton. *Story as Rhetorical Weapon : christian Humanism in Calvin's Reply to Sadolet*. Calvin's Early Wrightings and Ministry, ed. Gamble Richard(New York &London, 1992).

Willis, E. David. *Rhetoric and Responsibility in Calvin's Theology*.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Theology. edited by Alexander J. McKelway and E. David Willis. Atlanta : John Knox Press, 1974.

박건택, “칼뱅 전기물 연구”(신학지남, 2004년 가을호, 서울 : 신학지남사).  
 \_\_\_\_\_, “칼뱅의 ‘스캔들’ 이론과 오늘의 목회적 현실”(신학지남 2006 봄호, 서울 : 신학지남사).  
 \_\_\_\_\_, “문명과 계시의 시각으로 본 칼뱅의 설교”(신학지남, 2009년 여름호, 서울 : 신학지남사).

안인섭, “칼빈의 교회와 국가론”(「칼빈연구」 3집<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5).

## 석사 논문

- 이승연. 「칼뱅의 해독의 수사학 : 반(反)가톨릭 저술을 중심으로」(서울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 【Abstract】

This study is that Calvin as a humanist, aimed to study how to control the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 politics and church, to argue his reformation. The first chapter is written about the goal, limitation, method of this study. Calvin's work, *The necessity of The Church Reformation*(Supplex erhortatio ad Carolum, 1543) was used to study. Centering the work, Calvin's Reformation is to be analyzed using the rhetorical method to find how Calvin developed his thought. Through this study, I'll try to find how Calvin had achieved the use of the secular learning and apply to the current church of korea.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training of calvin's rhetoric and considering the rhetoric in Calvin's work. This chapter also includes the study that *The necessity of The Church reformation* was written for whom,

by which method of discourse.

The third chapter keeps in mind that Calvin's text was written in a historical period in terms of political, theological aspect,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the rhetorical strategic need.

In the fourth chapter, Calvin's text using the rhetoric is analyzed in terms of imitation, citation, 'copia'(the abundance of words) about concrete contents and rhetorical conclusion. Through Calvin's rhetoric, we can answer how to overcome complicated political, theological circumstances and then how to apply how to apply for Church reformation.

Finally, the fifth chapter comes to conclusion about what to learn, how to achieve for improving the current korea comes church through above analyzing based on Calvin's rhetoric.

## 「칼빈연구」 투고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칼빈연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자격) 논문 투고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조 (투고양식) 투고하는 사람은 「칼빈연구」 논문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2호 양식)

제4조 (내용)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국문초록과 주제어
2. 논문
3. 참고문현목록
4. 영문초록과 주제어

단, 한국어와 동일한 뜻의 외국어의 주제어를 5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제5조 (논문)

1.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또는 학위논문으로 발간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에 있는 내용을 게재할 경우 본래의 내용과 70% 이상 달라야 한다.
2. 논문은 가능한 통합 학문적 연구를 지향하며, 학문간 연구를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에 적용성이 높은 논문을 권장한다.
3.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할 수도